

Several months ago we saw how God transformed general Naaman. Briefly: he was a leper wanting to be healed. But he was unaware of his far bigger problem, his sin. God used Naaman's pride to expose his sin. Finally, he obeyed God's word and *his flesh was restored like the flesh of a little child* (5:14b).

Through the prophet Elisha, God told him to *wash in the Jordan River seven times* (5:10). Those words aroused his sinful heart. 2 Kings 5:11 *“Naaman was angry and went away, saying, “Behold, I thought that he would surely come out to me and stand and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and wave his hand over the place and cure the leper.”*

Naaman was a successful general. 5:1. *Naaman, commander of the army of the king of Syria, was a great man with his master and in high favour...* His wealth and high position demanded great respect. But Naaman needed to learn humility. Why? Because only when humbled could he respond to God's grace and be healed.

God would use Naaman's leprosy to expose his sin and to soften his hard heart. By God's grace, Naaman could then turn from his sin and be healed. With a softened heart, God brought him to faith. His cleansing is a lesson in God's mercy and grace.

Naaman couldn't see that his pride separated him from God. Nor could he foresee that God would use his leprosy to bring him to salvation. The root cause of leprosy is beneath the skin. The root of sin is in a rebellious heart.

몇 달 전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아만 장관을 변화시키는지 보았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는 나병환자였고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의 건강의 문제보다 더 큰 죄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교만을 사용하셔서 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어린 아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단 강에 일곱 번 씻으라 (5:10)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의 반응은 그의 죄성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5:11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성공한 장관이었습니다 5:1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결국 그는 자기 명예의 걸맞은 대접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 묻는다면, 그가 오직 겸손해져야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고 고침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아만의 나병을 사용하셔서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만은 죄로부터 돌아서 치료 받을수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부드러워진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깨끗하여짐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잘 드러냅니다.

나아만은 교만으로 그가 하나님께로 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병을 사용하셔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병의 근본 뿌리가 피부 아래에 있듯이, 죄의 뿌리 또한 반역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Elisha had told Naaman to **“wash in the Jordan seven times”** (5:10). But deeply offended, he would not let go of his pride. His pride revealed his sinful heart. Holding on to his anger **he turned and went away in a rage** (5:12). But then his servants persuaded Naaman to take Elisha’s advice. At last, Naaman swallowed his pride. Having **dipped himself seven times in the Jordan** he was healed (5:14).

We have Naaman’s problem. Pride is far too common in us. It affects our relationships with God, with friends and family. Why? Because pride focusses on ourselves. It hardens our hearts. We belong to the ‘me generation’. Our natural tendency is to worship ourselves. Now that sounds harsh, doesn’t it?

Maybe I’ve offended you. You don’t like to think that you’re proud, lacking in humility. But I’m speaking to myself, just as much as I am to you. Some of us will demonstrate pride more than others. Even so, there’s an element of pride in all of us.

What is God’s response to pride? We read in James 4:6b. **“God oppose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We shall consider God’s grace a little later. For the moment, keep in mind that it is God’s grace: His undeserved, unearned favour. Meanwhile, consider how we can overcome pride.

We read in James 4:10.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and he will exalt you.** There’s our answer. It is quite straightforward. And it has a great result. All you need to do is humble yourself. But you and I have a problem. We can’t humble ourselves. We want to be humble, like Jesus, but we need help.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말했습니다. 그는 이에 화를 내고, 교만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의 교만이 그의 최악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습니다 (5:12). 그러나 나아만의 종은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말을 들으라 설득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아만은 그 자손심을 삼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담고, 그의 병은 치료됩니다 (5:14)

우리도 나아만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교만의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 흔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친구, 가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 자신에 집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집중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 자신을 예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너무 가혹하게 들리시나요?

당신은 나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저의 이런 말에 상처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을 저 자신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유독 이런 교만을 더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교만의 요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야고보서 4:6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좀이다 볼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려 합니다.

야고보서 4:10 절에서 이같이 말씀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이 구절이 우리를 위한 답입니다. 이는 매우 분명하며, 훌륭한 결과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우리를 낮추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The Lord Jesus is our Helper. The Lord Jesus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Philippians 2:8). We read in John 3:14-15,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Jesus is speaking about being lifted up on the cross to die.

The Lord Jesus is our hope. He was lifted up to die so that we might be lifted up to new life in Him. There is our hope for becoming humble. It is truly humbling to know that Jesus died and rose from the dead for us. Our response to Jesus is come to Him with thankful, humble hearts and with repentance and faith. But now you wonder, 'Is there any place at all for boasting in our lives?'

Boasting is pride given a voice. The New Testament speaks much about boasting. Christians can indeed boast. Galatians 6:14a, *far be it from me to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Our only boast is in Christ Jesus. The fruit of boasting in Christ is found in Philippians 2:3, *Do nothing from selfish ambition or conceit, but in humility count others more significant than yourselves.* Here is the antidote to pride, *count others more significant than yourselves.* Nowhere in the Bible are we encouraged to be proud of ourselves. Our boast is not in ourselves, but in the Lord Jesus Christ.

Naaman, you and I, can be healed because Jesus paid the price for our sin. 'How can you say that?' you ask. It is because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He died in our place. 2 Corinthians 5:21. *For our sake he [God] made him [God's Son] to be sin who knew no sin,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돕는 분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8). 요한복음 3:14~15 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리사,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갈게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해 지기 위한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길은, 감사한 마음과, 겸손함, 그리고 믿음과 회개로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할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하고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자랑함은 교만의 표현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여러 구절에서 이 자랑함에 대해 말씀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14 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자랑함의 열매에 대해서 빌립보서 2:3 절에서 이같이 말씀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만에 대한 해독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말씀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 자신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을 지불 하셨기 때문에 나아만과 여러분과 저는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But’ you say, ‘Jesus lived and died about 900 years after Naaman. How could Jesus pay the price for Naaman’s sin?’ The Apostle John writes in 1 John 2:2. **He is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and not for ours only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The Lord Jesus bore God’s wrath against our sin on cross: sins, past present and future. He died to free us from God’s wrath.

‘Well then! Will everyone go to heaven when they die?’ Not at all! John writes in his Gospel, in John 3:16b,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Eternal life is found in the Lord Jesus, only through faith in Him.

Because our sins were laid on Jesus, we have sure and certain hope. 1 Peter 2:24.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tree, that we might die to sin and live to righteousness.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Jesus paid the price for our sin when He died on the cross.

What God looked for in Naaman is what He looks for in you and me. How can He heal our relationship with Him and grant us new life? What is necessary for God to declare us right with Him? We must come to Him in repentance and faith. Like Naaman, we must turn from our sin and trust in God’s mercy and grace.

The Holy Spirit always points us to the person and work of Christ. The Spirit convicts us of sin and softens our hard hearts. We can then recognise our sin and confess it. 1 John 1:9,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그러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아만 보다 900 년이나 뒤에 오신 인물인데, 어떻게 뒤에 오신 예수님이 나아만의 죄값을 지불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에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2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서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16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기에, 우리에게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뱀전 2:24, **“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찾으신 것은 당신과 나에게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를 고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심에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에게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만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공로를 가리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질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Leprosy was the visible sign of ill health in Naaman. But it was his heart that needed healing. Pride was his stumbling block. In his heart he had this question: *'How can God allow a good and great man like me suffer?'* Because he was a sinner, he couldn't cope with God's plan for him. Angry with Elisha, he was really directing his anger at God.

Recall Naaman's words in 5:12. ***"Are not Abana and Pharpar, the rivers of Damascus, better than all the waters of Israel? Could I not wash in them and be clean?"*** So he turned and went away in a rage. Naaman sought healing on his terms. He trusted in his good reputation and his wealth and works, rather than in God.

God's plan for Naaman is revealed in his journey to faith. The young servant girl sowed the seed for him in 5:3. ***"Would that my lord were with the prophet who is in Samaria! He would cure him of his leprosy."*** The king of Israel gave Naaman another step towards healing. He read the king of Syria's letter. Then (5:7) ***he tore his clothes and said, "Am I God, to kill and to make alive..."*** Indirectly, Israel's king testifies that only God could heal Naaman. God then used Elisha (5:10) to give him God's word. Naaman's servants finally reminded him of Elisha's words, ***"wash in the Jordan seven times"*** (5:10, 13). God used those four to lead Naaman to faith.

At last, Naaman's hard heart was softened to the truth of God's **Word**. He obeyed and was healed. Three factors led to healing: hearing the word, testimony, and obedience.

외관상으로 나아만은 나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필요한 건 그의 마음이었고 교만함이 그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이 선량하고 위대한 사람이 고통 받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가?'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화풀이를 하지만 정작 그 화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12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자신의 조건에 따라 치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성, 부, 그리고 공로를 믿었습니다.

이런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을 향한 여정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자 종 아이는 그를 위해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5:3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나아만이 치료를 위한 그 첫 걸음을 내딛게 했습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5:7 절에서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나"***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나아만을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5:10)를 사용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아만에 좋은 결국 그에게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라는 엘리사의 말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네 사람을 통해 나아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드디어 나아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워집니다.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고침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를 고침 받게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증거 그리고 순종.

You may not have received Jesus as your Lord and Saviour. But here you are, in church, **hearing the word of God**. God is at work, seeking your salvation. Romans 10:13-14, 17, *For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How then will they call on him in whom they have not believed? And how are they to believe in him of whom they have never heard? ...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hearing through the word of Christ.* We need to hear God’s Word so that we can respond to Him with faith.

God changed Naaman’s heart. We have his **testimony** to God’s grace is in 5:15b. He said to Elisha, *“Behold, I know that there is no God in all the earth but in Israel...”* Naaman doesn’t speak about the miracle of being healed. Instead, he confesses that God has been working to bring him to salvation.

Earlier, in Syria, he’d thought that healing him would be costly. He’d brought some of his vast wealth with him. 5:5, *ten talents of silver, six thousand shekels of gold, and ten changes of clothing.* Now, he said to Elisha (5:15c), *“accept now a present from your servant.”*

Elisha rejected his offer. 5:16, *“As the LORD lives, before whom I stand, I will receive none.” And he urged him to take it, but he refused.* Why did Elisha refuse Naaman’s gift? In part, it was to help Naaman see that he had received God’s free grace: God’s unmerited, unearned, favour. It is the same for all who find salvation in Christ. We read that in Ephesians 2:8-9.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your own doing; it is the gift of God, not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당신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찾으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13-14, 17 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나아만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간증을 5:15 절에서 봅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이 자신이 치료 받은 기적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가 전에 아람에 있었을 때 생각하기를 고침을 받음에는 많은 비용이 들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많은 재물과 함께 그 길을 떠났었습니다... 5:5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는 엘리사에게 15 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엘리사는 그의 선물을 거절합니다. 5:16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왜 엘리사가 그의 선물을 거절한 것일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공로나 수고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2:8~9 절에서는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Naaman had rejected simply washing in the Jordan River. That would cost him nothing. But salvation is all of grace. No money, no gift of any kind, can merit salvation. God's grace to us is totally, completely free. If it were not free, then salvation would not be by grace. 1 John 4:10. ***In this is love, not that we hav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Christ came to bear the cost of God's wrath against our sin.

When Naaman first rejected Elisha's words he called Elisha's LORD "***his God***" (5:11), not *my* God. Unbelieving Naaman had had no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Philip Ryken sums up his unconverted life (2 Kings, p. 105): *his life was characterized by pride, anger, and unbelief.*

As the Holy Spirit searches our hearts, He exposes the 'old self' in us (Ephesians 4:22-24). How much time do we spend thinking or boasting about our achievements? How much time and money do we devote to food, clothing, and entertainment? How little time do we devote to God? At the very least, think again what salvation really means. Ask yourself, can I call Elisha's God my God?

Having **obeyed** God' Word, a transformed man came out of the Jordan River. Recall Naaman's words in 5:15a ***"Behold, I know that there is no God in all the earth but in Israel..."*** By God's grace he would no longer worship Syrian gods. 5:17, Naaman then asked Elisha for ***"two mules' load of earth, for from now on your servant will not offer burnt offering or sacrifice to any other god but the LORD."*** His sacrifice from now on would only be to the God of Israel.

But Naaman has another problem. He must accompany the king to worship in the house of Rimmon. Naaman must attend, but he cannot compromise his newfound faith. He faced a very difficult decision. He cannot worship a pagan god. But he must go with his master to worship ***in the house of Rimmon.***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선물, 돈, 그 어떠한 것도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이 은혜가 무료가 아니라면,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께서서는 오셔서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나아만에 처음 엘리사의 말을 거부했을 때, 그는 11 절에서 엘리사의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이라 하지, "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불신 가운데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도 없었던 것입니다. Philip Ryken 은 믿지 않는 이런 불신자의 삶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그의 삶은 교만과, 분노, 불신으로 말미암아 특징지어진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 그는 우리의 옛 자아를 드러내십니다 (엡 4:22-24). 우리는 우리의 성취를 계속 생각하거나 자랑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나요? 우리는 많은 시간과 돈을 뭘 먹을지, 뭘 입을지, 그리고 어떻게 즐길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나요? 최소한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지 스스로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사람이 요단 강에서 나왔습니다. 5:15 절에서 나아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더 이상 아람 (시리아)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5:17 절에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다음과 같이 청합니다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나아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아람 왕과 함께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나아만은 꼭 참석해야 했고, 그는 자기 신앙을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길 수 없음과 동시에, 왕과 함께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Hear his dilemma in 5:18, ***“may the LORD pardon your servant: when my master goes into the house of Rimmon to worship there, leaning on my arm, and I bow myself in the house of Rimmon, when I bow myself in the house of Rimmon, the LORD pardon your servant in this matter.”***

And so he asks that God pardon him for those occasions. Clearly, this troubled him. Twice he requested pardon for having to enter the house of the Rimmon. His awakened and sensitive conscience deeply troubled him. Elisha’s response is surprising. He simply said to Naaman (5:19a), ***“Go in peace.”***

Many of us have a similar problem, especially Christians from Asia. Ancestor worship has been part of your family life for many generations. Your family may require you to perform an act of worship at an ancestor’s grave. Or, on special occasions go with them to a pagan temple.

What can you do? You could respectfully decline, or you could attend but not participate in worship. In other words, **1.** Don’t go. Or, **2.** Decline to join in worship. Some Christians have chosen the first way. Others attend, but don’t join their family in worship. If your Christian faith is strong, it’s possible to attend and not worship. But are you a new believer or struggling how to live the Christian life? Then politely and graciously refuse. Keep in mind that pagan temples are under demonic influence. Above all, remember that our God is a God of mercy and grace. Like Naaman, you might need to seek God’s pardon for what you must do.

How do you counsel a Christian who has been asked to attend the worship of another faith? Or how do you counsel someone who is troubled from attending one of those services? Pray with them and if they seek guidance, be gracious. You are dealing with a brother or sister in Christ.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The Lord is near.*** (Philippians 4:5 NIV)

이런 그의 딜레마가 5:18 절에서 나타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그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는 그가 분명한 마음의 고생 가운데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그는 림몬의 신당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용서를 구합니다.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그의 양심이 그를 깊이 괴롭게 했습니다. 엘리사의 응답은 꽤 놀랍습니다. 그는 나아만에게 19 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우리가운데 특별히 아시아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이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많은 가정이 오랫동안 조상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배경에서 당신은 종종 조상의 무덤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때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공손하게 이를 거절하거나, 혹은 그 자리에는 가되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인즉 1. 아예 가지 않거나 2. 제사에 참석하지 않거나. 만약 당신의 신앙이 굳건하다면, 그 제사의 자리에 가더라도 참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많은 신앙의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다면, 겸손히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이런 우상숭배의 자리는 사탄의 영향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아만과 같이 당신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종교의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조언하십니까? 또는 그러한 자리에 참석하는데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어떻게 조언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들이 자문한다면 은혜로운 태도로 말씀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 4:5)

There is a broader application for us. Should we attend places that exhibit ungodly practices? Often the answer is clear, especially where those places indulge in pornography. What about visiting hotel bars and nightclubs? Alcohol and drugs often flow freely in those places. That's ungodly behaviour. You know my answer.

But I prefer one young girl's response. Her friends asked her to come to the pub with them. She declined. They mocked her, saying 'Are you afraid your father will hurt you?' 'No,' she replied, 'I'm afraid that I will hurt him.'

Christians seek to honour God, our Father. For He has saved us and reconciled us to Himself. From now on Naaman would seek to honour God. So too, that is our response to God, who saved us. Ephesians 5:2, *walk in love, as Christ loved us and gave himself up for us, a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 to God.*

Nowhere does Naaman say 'I repent of my sin'. But he illustrates his repentance. By God's grace he turned from his sin of pride and came to faith in God. By God's grace, you and I seek to walk with Christ.

The waters of the Jordan River were the means of cleansing Naaman. They were not the cause; they were the means God used. The waters brought him peace. For us, for you and me, it is Jesus who cleanses us from sin. He is our peace. Trusting in His death, our sins are washed from us. **Jesus is our Jordan River.**

좀 더 넓은 적용 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행위를 나타내는 장소에 가야 할까요? 이런 장소가 특별히 성인물을 접속함으로 성적 죄를 탐닉하는 장소라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호텔 바라던가 나이트클럽 같은 곳은 어떤가요? 술과 마약 등이 이런 장소에서 자유롭게 소비되고 이는 매우 경건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에 대해 한 어린 소녀의 대답이 한 대답이 마음에 듭니다. 그 소녀의 친구들이 술집에 가자고 했을 때, 그 소녀는 친구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네 아버지가 너를 다치게 할까 봐 두려운 거야?"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를 다치게 할까 봐 두려운거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와 화목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려 합니다. 이런 나아만과 같이 우리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나아만은 오늘 구절에서 직접 "내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을 통해 회개의 모습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교만의 죄로부터 돌아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과 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요단강 물은 나아만을 정결케 하는 수단이지 원인이 아녘습니다. 요단 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단이었습니디. 그 물은 나아만에게 화평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기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의 십자가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씻기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요단 강입니다.

When God rescued His people Israel from Egypt, He brought them to Palestine, the Promised Land. But before they could enter the Land, they had to cross the Jordan River.

Jesus, our Jordan River, is the way for you to enter God's Promised Land, heaven. Christian friends, rejoice in the knowledge that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1 John 1:7). Through Jesus, you freely enter into God's presence.

Is it always a sin to be proud? Certainly, when it dominates our lives. There is a far better way to live. Praise and thank God when you are successful. Thank Him for His good gifts. And be content. The Apostle Paul writes in Philippians 4:11b, *I have learned in whatever situation I am to be content.* With Elisha, Naaman and the Apostle Paul we can then say, **"Go in peace."** Amen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을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우리의 요단 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땅,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요한일서 1:7)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항상 죄일까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죄입니다. 여기 훨씬 더 나은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사에 감사하시고, 그 안에 만족을 누리십시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11 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엘리사, 나아만,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는 **"편안히 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